<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화학산업 구조조정 재검토해야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합병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하고, SK가 쌍용정유를 흡수하며, 한화종합화학과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통합·분리키로 합의하는 등 화학산업 M&A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대그룹이 1999년 말까지 5대 주력업종의 51개 계열사 중 25개를 정리하고 부채를 1998년말 79조2710억원에서 45조3680억원(199%)으로 낮춘다는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정유를 외국에 매각하고 삼성종합화학과 통합협상을 진행중인 현대석유화학 지분을 삼성 또는 해외에 매각하는 등 화학사업을 포기키로 결정,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가 석유화학 및 정유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석유화학에 진입한 것은 1988년 당시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매출 5000억원에 1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성이 양호하고, 삼성이 석유화학사업 참여를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석유화학사업 육성전략이나 장기비전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현대와 삼성이 석유화학 시장에 진입한 이후 극심한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이 유발됐고, 수급 및 가격카르텔이 자행됐음은 불문가지이다.

현대정유도 1964년 극동정유로 출발한 후 지분참여한 상태에서 1980년대 후반 대산 플랜트 건설을 기화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자 1993년7월 장홍선씨의 지분을 강제(?) 인수한 후 현대정유로 개명했으며 1998년말 자산 3조6000억원, 매출 3조5700여억원의 부실기업이다. 현재 지분은 현대중공업 34.7%, 아말가메이티드 26.7%, 현대자동차 6.2%, 인천제철 5.3%, 대한항공 5.2%, 현대 계열사 및 관계자 21.9%이다.

현대석유화학 및 현대정유 직원들은 매각방침이 발표되자 대단히 당황해했다고 들린다. 그러나 현대가 화학사업에 대한 아무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화학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한국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다행스럽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이한 굴레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K의 쌍용정유 인수에 사우디 Sabic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현대정유의 해외매각 방침으로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가 유동적으로 전환, 정유 구조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M&A 협상이 타결방향으로 흐르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고,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이다. 현대가 현대석유화학 지분을 해외 또는 삼성종합화학에게 매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삼성종합화학은 인수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막대한 부실기업을 인수할 화학기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석유화학은 1998년말 현재 부채 3조2205억원에 자기자본 1조178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3%에 불과하나 자산재평가차액 6749억원을 공제하면 부채비율이 620%에 달하고, 삼성종합화학도 부채 2조4814억원에 자기자본 6576억원으로 부채비율을 377%로 낮추었으나 재평가차액 4038억원을 공제하면 부채비율이 950%에 달하는 부실덩어리이다. 어느 누가 인수할 것인가? 삼성의 기업가치가 현대에 비해 2700억원 정도 많다는 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한화종합화학과 대림산업의 통합·분리도 실현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현대정유 퇴출결정에 따라 한화에너지 인수계약을 지키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이고, 한화가 한화에너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자금난 심화에 따라 곧바로 부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이 한화와의 M&A를 서두른 것은 자금난의 궁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는 측면이 강한데 현재는 오히려 한화가 자금난에 몰릴 위기에 처해 있고, 따라서 대림과 한화가 석유화학 빅딜을 성사시킬만한 아무런 조건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LG화학 및 호남석유화학을 포함한 구조개편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학산업 구조조정은 현상적인 위기탈출용이 아니라 시너지효과 창출 및 경쟁력 강화라는 M&A의 본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다.

외국 화학기업들이 군소 화학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9/5/3>